

〈寓目囊箱〉 설화의 구조적 변형과 의의

김헌선(경기대)

〈 목 차 〉

1. 설화 연구의 새로운 방향
2. <우목낭상> 설화의 각편의 구조분석
3. <우목낭상>과 <손없는 색시>의 구조적 비교와 의의

1. 설화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설화 연구를 수행해 본 결과, 현재 설화 연구의 커다란 문제점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설화 연구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설화의 자료 발견이 긴요한 과업인데, 이제 이러한 연구는 거의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우리 설화 연구에서 자료의 정리와 발견이 다른 나라에 견주어서 미진한 편인데, 그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자료 작업이 요구된다.¹⁾ 그래서 이미 잘 알려진 자료라고 하더라도 재정리하고 문제의식을 가다듬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만큼 자료의 발견과 작업이 긴요하다는 뜻이다.

1) 이웃 일본의 설화 자료집과 자료 분류집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柳田國男, 《日本昔話名彙》, 日本放送出版協會, 1945

關敬吾, 《日本昔話集成》 全六卷, 角川書店, 1950-1958.

關敬吾, 《日本昔話大成》 全十二卷, 角川書店, 1978-1980.

稻田浩二・小澤俊夫, 《日本昔話通觀》 全二十九卷, 同盟舎, 1978-1982.

둘째는 설화 연구의 방법론 자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화 연구는 자료 작업과 이론 작업이 구체적으로 결합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자료와 이론을 연결시키는 것이 방법이고, 방법은 이론적 안목을 갖추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의의가 있다. 새로운 자료의 발견은 연구 시각을 어떻게 설정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존의 자료를 재설정하고 연구하면서 해석 가능한 것이므로 무한 수에 가까운 대상이 된다. 따라서 문제되는 자료의 항목을 다시금 살펴서 거시적 차원의 접근과 미시적 차원의 접근을 견주어서 병행하여 연구했을 때 바람직한 연구 방법이 마련되리라 예상된다. 유형과 유형을 관련짓고, 비교설화학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설화 연구의 방법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런 까닭에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연구의 문제점은 별도의 것이 아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보면, 설화 연구는 두 문제점을 추구하는 접점에서 다시금 혁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시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寓目囊箱>이라는 설화 유형을 구실삼아 이 자료에 대한 재인식이 설화 연구의 새로운 방향 수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점검하고자 한다.

<우목낭상> 설화는 계모가 새로 와서 친부가 집에서 출타하고 없는 사이에 아들의 눈을 빼앗았다가 아버지가 다시금 눈을 재생시킨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가 <寓目囊箱>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은 기이한 일인데, <千字文>에 있는 '耽讀杭市 寓目囊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다. 원뜻은 탐독하기를 저자거리의 서점에까지 가서 보고, 눈에 글을 붙여 주머니나 상자 안에 넣는 것처럼 했다는 뜻이다. 이 <千字文>의 내용은 후한 때의 王充이라는 인물이 글을 읽는데 정신을 쏟아서 낙양 저자거리 안에 있는 서점에 가서까지도 글을 읽었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그런데 <우목낭상> 설화는 그러한 뜻은 아니고, 눈을 주머니에 싸서 상자 속에 넣어 두었다는 뜻으로 전용되고 있다.

<우목낭상> 설화는 계모에게 쫓겨나 장님이 된 사람을 여각에서 만난 사연에 견준다면 月沙 李廷龜의 문헌설화에서 일부 발견되어 상통하기

는 해도 엄격하게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이정구가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그곳에서 어둠 속에 눈빛을 빛내며 글을 베끼던 사람이 노자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는 <우목낭상>에서 눈을 잃은 자식과 해후하는 아버지의 사연과 일정 부분 일치한다.²⁾ 그러나 온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목낭상>은 문헌설화가 구전설화로 바뀌어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구전설화임이 분명하다.

<우목낭상> 설화는 계모설화의 악행을 중심으로 하는 일군의 설화 속에서 논의했을 때에 구조적인 변형과 설화로서의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모에게 악행을 당하는 주인공을 모아서 정리한 결과가 있으니 그것이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설화유형분류집》(I)권이 그것이다. 계모형 설화의 전체적인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분류되어 있으니 441-1: 전실 자식 죽인 계모 행실 밝힌 며느리, 441-2: 계모가 죽인 전실 자식 접동새 되기, 441-3: 전실 자식 간을 먹으려는 계모, 441-4: 콩 쥐팔쥐, 441-5: 전실 자식 눈을 뺀 계모, 441-6: 딸의 인연을 망친 계모 등이 그것이다.³⁾ 이 유형분류집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유형이 특정 유형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도 하고, 아예 그 존재가 희석되어 있는 유형도 있다.

그러므로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들 설화를 다루어야만 일정한 원리에 입각해서 계모형 설화 전반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룰 지 이론적 모형을 수립해 보자. 그리고 명칭을 부과해서 단락별로 비교표를 만들도록 한다.

- [계모등장] (가) 아버지가 전처를 대신하여 계모를 얻다
 [갈 등] (나) 계모가 전실 자식과 갈등하다.

2) 이정구의 이야기 가운데 중국에 가서 체험한 밤에 글을 베껴 쓴 사람이 눈이 빛나는 이야기와 노자돈이 떨어진 사람을 도와준 이야기는 《東野彙輯》 가운데 <陳秦人筆振華譽>에 보이고, 그 이야기가 《記聞叢話》 《梅翁閑錄》 《靑野談藪》 등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전하고 있다.

3) 조동일 외,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설화유형분류집》(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438-441쪽.

- (나)1 의붓 딸과 갈등하다.
 (나)2 의붓 아들과 갈등하다.
- [악 행] (다) 계모가 전실 자식을 훼손시키거나 죽이다.
 (다)1 의붓 딸의 팔을 자르다.
 (다)2 의붓 아들의 눈을 빼다.
 (다)3 전실 자식의 간을 먹으려 하다.
 (다)4 의붓 딸의 인연인 남자를 죽이다.
 (다)5 의붓 자식을 죽이다.
 (다)5.1. 의붓 아들을 죽이다.
 (다)5.2. 의붓 딸을 죽이다.
- [구 원] (라) 전실 자식이 집에서 나와 해매다가 구원자 만나다.
 (라)1 인연을 만나서 혼인하다.
 (라)2 아버지를 만나다.
 (라)3 동물이나 포수를 만나다.
- [해 결] (마) 죽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다.
 (마)1 며느리가 해결하다.
 (마)2 환생해서 스스로 해결하다.
 (마)3 죽지 않고 찾아가 아들이 복수하다.
- [축 출] (바) 다시금 문제가 생겨서 쫓겨나다.(계모의 개입에 의한)
- [재 회] (사) 가족과 다시 만나다.
- [계모옹정] (사)1 남자와 다시 만나다.(손상된 팔 재생 포함)
 (사)2 아버지와 다시 만나다.(손상된 눈 재생 포함)
 (사)3 계모를 옹정하다.

| | 칠성본형 | 공쥐팔쥐형 | 손없는색시형 | 황화일엽형 | 우목낭상형 | 버들도령형 | 집동새형 | 사명당형 |
|------|------|-------|--------|-------|-------|-------|------|------|
| (가) | + | + | + | + | + | + | + | + |
| (나)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다)1 |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5.1. | | | | | | | | + |
| 5.2. | | + | | | | | + | |

| | | | | | | | | |
|------|---|---|---|---|---|---|---|---|
| (라)1 |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 (마)1 |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 (바) | | | + | | | | | |
| (사)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위에서 정리된 서사 단락과 유형별 특색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가)에서 (사)까지는 계모형 설화를 대표하는 여덟 가지 유형의 근본적인 서사 단락을 선별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개별적인 독립 단락소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각 유형을 정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 유형별로 정리해야 의의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칠성본> 유형은 서사무가인 <칠성풀이>·<문전본풀이>·<살풀이>·<성신굿> 등으로 전승되는 것이나 단순히 무가의 전승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전승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무가가 아니라 구전 설화로서도 긴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적인 서사단락의 구성 요소가 간략하게 정리된다.

<칠성본> 유형의 핵심적인 요소는 계모와 전실 자식 7형제의 갈등에 있고, 계모가 전실 자식의 간을 먹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전실 자식은 자신들의 간을 내주지 않고, 죽이려던 포수가 살려주거나 특정한 동물인 사슴이 대신 죽어서 간을 내주고, 자식이 직접 찾아가 복수하고, 계모를 죽이는 것이 핵심적이다. 그래서 (가), (나)2, (다)3, (라)3, (마)3, (사)3 등의 서사 단락을 갖추고 있다.

<칠성본> 유형은 동물이 등장해서 자신의 간을 내준다거나 이들 자식들이 나중에 별이 된다고 했으므로 신화적 구성 요소를 확연하게 갖추고 있는 설화임이 분명하다. 특히 사슴과 멧돼지 등의 태나 간을 물에 집어넣으니 물고기가 되었다고 해서 기원신화의 면모까지도 갖추고 있는 셈

이다. 신화적인 해결 방식인 자연과 문화의 균형이 적절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콩쥐팍쥐> 유형은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신데렐라> 유형인데, 전 실자식인 딸과 계모를 갈등의 축으로 하면서도 의붓딸과 계모의 딸이 배우자를 두고서 경쟁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갈등을 창출해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서사적 단락은 비교적 간단하게 표시되지만, 전실 딸을 죽인다는 점이 핵심이고 나머지 과정에서 환생한다는 점이 더구나 특별한 면모라 할 수 있다. 서사 단락은 (가), (나)1, (다)5.2, (마)2, (사)1, (사)3 등으로 되어 있다.

<콩쥐팍쥐> 유형은 갈등 전개 양상이 계모뿐만 아니라, 계모의 딸인 의자매와 대결한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고, 이 과정에서 계모는 의자매인 팍쥐의 후견인 노릇을 하고, 이에 맞서서 죽은 어머니가 콩쥐의 후견인 노릇을 하지만, 대체물인 초월적 원조자로 구체화되는 점이 차이가 난다. 게다가 죽었다가 환생해서 죽인 사람을 처단하는 것도 <콩쥐팍쥐> 유형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면모이다.

<손없는 색시> 유형은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전실 자식인 딸과 계모가 갈등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딸이 계모의 모해로 팔이 잘리고 집에 쫓겨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가 계모의 모해로 다시금 시집에서 쫓겨 났다가 잘린 팔이 재생되고 남편과 해후한다는 내용이다. 이 유형의 핵심적인 내용은 잘린 팔의 재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사 단락은 (가), (나)1, (다)1, (라)1, (마), (사)1, (사)3으로 된다.

<손없는 색시> 유형은 가계 구성에 있어서 1·2·3대가 모두 등장하며, 특히 3대인 아들이 물 속에 빠지려고 할 때 내뺀 팔에 손이 재생된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다. 계모의 개입이 새로 일군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조작된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집에서 축출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黃花一葉> 유형은 전실자식인 딸과 계모가 갈등을 한다는 점이 동일하지만, 계모의 모해로 쫓겨난 딸이 스스로 정혼한 배우자를 찾아가서 혼인하고, 배우자와 친아버지의 조우를 주선하고, 배우자에게 시를 남기도

록 해서 아버지가 다시금 찾아오도록 하고 있으며, 마침내 딸이 누명을 벗고 아버지와 해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서사 단락은 (가), (나) 1, (라)1, (사)2, (사)3으로 되어 있다.

<황화일엽> 유형에서는 딸 스스로 집을 나와서 정혼한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이 특별하고 아버지를 만나려는 점이 특별하다. 다른 유형에서도 아버지를 만나나, 이 유형에서처럼 아버지의 지체가 높고 배우자와 아버지의 만남을 주선하고, 배우자가 시를 써서 딸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점이 특별한 면모이다. 보통 그 한시는 '黃花一點風飄飄 飛去海南着李枝 江上孤魂復欲見 明朝乘鶴下揚州'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황화일엽>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우목낭상> 유형은 계모와 전실 아들 사이의 갈등을 주축으로 해서 전개된다. 전실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계모가 조작된 편지를 써서 그러한 편지에서 제시된 대로 자신의 눈을 빼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서 눈을 재생시킨다고 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된다. 서사 단락은 (가), (나)2, (다)2, (라)2, (사)2, (사)3 등으로 되어 있다.

<우목낭상> 유형에서 핵심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식이 눈을 빼는 것에 있고, 다시금 그 아버지가 주도적 구실을 해서 자식의 눈을 여러 사람의 눈물로 재생한다는 데에 있으며, 그래서 설화 유형의 명칭을 <우목낭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우목낭상> 유형은 다른 사건의 액자형식으로 삽입되어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되어 있으며, 겉의 이야기는 과거의 급제담이며, 국내 인물인 成三問·李廷龜 등이 중국에서 급제하는 시제로 이 이야기가 동원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버들도령> 유형은 계모와 의붓딸 사이의 대결이 되 계모가 딸의 인연을 망치려고 한다는 점이 특별하고, 아직 혼인하지 않은 배우자의 집에 찾아가서 배우자를 죽인다는 점이 악행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 그런데 전실 딸이 배우자가 될 도령의 안내나 다른 구원자의 도움에 의해서 배우자를 살리고 다시 만나게 된다는 점이 주 내용이며, 그렇게 해서 정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사 단락은 (가), (나)1, (다)4, (사)1 등이 출현한

다.

<버들도령> 유형은 신비한 채소나 과일을 제공하는 버들도령이 등장하는 점이 특이하고, 계모가 그러한 비밀을 알아내고, 그 도령을 살해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오히려 전설 딸이 버들도령의 채소밭에서 얻은 약초를 가지고 다시 살리고 둘이 행복한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접동새> 유형은 비록 유형 자체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계모형 설화의 소중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사건의 핵심은 계모가 들어와서 딸과 아홉 남동생을 둔 인물과 갈등하다가 딸의 혼인 무렵에 딸이 죽거나 계모에게 살해되었고, 아홉 남동생이 누나를 대신해서 복수한다고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런데 죽은 딸이 불에 타서 접동새가 된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서사 단락은 (가), (나)1, (나)2, (다)5.2, (사)3 등으로 되어 있다.

<접동새> 유형은 사건의 서사 단락이 온전하지 않으나 여성이 죽어서 환생했다는 기원설화로 바뀐 점이 특이하고 각편에 따라서 계모 역시 불에 타 죽어서 까마귀가 되었으며, 접동새와 까마귀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접동새> 유형은 소중한 유형의 이야기인데, 그 사건 자체가 잊혀지고 유형 자체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고 있는 유형의 설화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접동새> 유형은 계모와 전설 자식인 아들과 딸이 모두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고, 사건 자체가 딸이 출가한 뒤에 벌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사명당> 유형은 계모가 의붓 아들과 갈등해서 의붓 아들이 결혼하는 날에 자식을 살해하게 되는 데서 사건이 시작된다. 자식의 의문스러운 실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며느리로 접지된 신부가 사건을 해결하고 시아버지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계모를 처단하고 나가서 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건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 단락은 (가), (나)2, (다)5.1, (마)1, (사)3, 등으로 되어 있다.

<사명당> 유형은 의붓 아들의 죽음이 신방에서 일어났으며, 억울한

누명을 쓴 신부가 사건을 해결하자 시아버지가 계모를 죽이고, 집을 나가서 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핵심 화소이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시가에 접근하는 것도 매우 인상적인 설정이다. 출가한 중이 사명당이 되는 유형이어서 따로이 명칭을 <사명당> 유형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러한 명칭의 유형은 기본형에 대한 것이므로 기본형, 변이형, 복합형 등에 관한 논의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설화의 유형에는 기본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이형도 존재하며, 게다가 복합형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변이형과 복합형은 각편 차원에서 생기는 것도 있고, 유형 자체의 차원에서 생기는 것도 있으므로 단순하지가 않다고 하겠다. 이 문제는 별도의 글이 요청되므로 차후에 논의하기로 기본형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치중하고자 한다.

이상의 유형은 구조적으로 세 가지로 압축이 가능하다.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갈등의 주체는 전실 자식과 계모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은 갈등의 주축이고, 갈등의 확대판이 계모와 전실 자식의 새로운 가정 구성 요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위나 며느리의 관계까지 연장되고 갈등의 양상이 주체의 변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갈등이 아들 때문인가 딸 때문인가에 따라서 사건의 구성 방식도 상당히 달라진다.

계모::아들:딸 [며느리:사위] 등의 구성 요소가 생기게 된다. 계모와 아들 사이의 갈등만으로 된 것은 <칠성본>·<우목낭상> 유형이고, 계모와 딸 사이의 갈등만으로 된 것은 가능성은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다. 계모와 아들 및 며느리 차원의 갈등으로 된 것은 <사명당> 유형이라 할 수 있고, 계모와 딸 및 사위 차원의 갈등 주체가 등장하는 것은 <콩쥐팍쥐>·<손없는 색시>·<황화일엽>·<버들도령> 유형이고, 이 관계가 불분명한 것은 <접동새> 유형이다.

갈등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건의 개요이고 계모의 악행이라고 한다면, 계모의 악행은 의붓 자식의 신체 훼손과 살해로 압축된다. 신체 훼손도 직접 실행되는 경우도 있고,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신체 훼손

손의 부위에 따라 다른데, 아들에게는 눈이나 간을 딸에게는 손을 요구해서 자르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악행은 의붓 자식의 살해나 사위 등을 살해하는데까지 이른다는 점이다. 대체로 신체 훼손의 경우에는 병을 칭하거나 부정을 내세우기 일쑤인데, 살해에서는 적대적인 관계의 극단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체 훼손은 <우목낭상>·<손없는 색시>·<칠성본> 유형이 이에 해당하고, 살해에는 <콩쥐팍쥐>·<버들도령>·<접동새>·<사명당> 등이 해당하고, 신체 훼손이나 살해가 없는 경우는 <황화일엽>이 이에 해당한다.

악행의 해소는 신체복원과 살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이밖에 직접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주체가 다르다. 딸, 아들, 사위, 며느리, 아버지 등이 모두 동참하면서 각기 다른 각도에서 신체복원과 살해 및 문제를 해결한다. 이와는 다르게 죽음으로 멈추고, 다른 이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당사자가 해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문제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하겠다.

설화 유형 분류가 유용하고 타당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유형 명칭을 부과해서 자료를 새삼스럽게 재인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계모형 설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가 있으나, 체계적인 분류와 구조적 연구가 결합되면서 일정한 유형 단위의 연구가 심화된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계모형 설화의 유형 가운데 하나인 <우목낭상>형 설화를 구실삼아서 이 설화 유형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도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된다. 첫째, <우목낭상> 설화의 유형적 가치와 의의가 입증되리라 예상된다. 전설 자식의 눈을 빼고자 하는 악행의 근거가 무엇이며, 이러한 악행을 넘어서서 새삼스러이 눈을 재생시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분석해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우목낭상> 설화는 <손없는 색시> 설화 유형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이야기이고, 접근하기에 따라서 동일한 이야기가 각자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서두 상황을 사건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계모의 훼손 부위가 달라지고, 훼손의 방법과 재생의 방법이

달라진다. 남성과 여성 가운데 주인공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야기의 구조적인 결합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미루어서 계모형 설화의 구조적 변형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셋째, <우목낭상> 설화는 곁보기와는 다르게 심층적으로 신화적 차원의 논리 도구가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그 점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이 아닌 남성들의 주체적 참여가 특히 두드러지는 설화인데, 이 과정에서 결정적 기여는 여성의 매개적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문화적 속성과 자연적 속성의 비밀을 연계시킨 여성의 매개적 작용에서 이 이야기가 오랜 동안 전승되면서 특별하게 변형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소리와 문자의 대립이 이 설화의 신화적 속성을 푸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2. <우목낭상> 설화의 각편과 구조 분석

<우목낭상> 설화 유형은 다음과 같은 각편을 보여주고 있으니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욱 많은 각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번호 | 설화제목 | 구연자 | 채록자 | 수록자료 | 출판년도 |
|----|---------------------|-----|-----|--------------|------|
| 1 | 우목낭상 | 이 씨 | 임석재 | 한국구전설화 7 | 1990 |
| 2 | 우목낭상 | 박태섭 | 임석재 | 한국구전설화 7 | 1990 |
| 3 | 우목낭상 - 상자 속에 넣어 둔 눈 | 김장수 | 조희웅 | 한국구비문학대계 1-1 | 1979 |
| 4 | 본처 아들 눈 뵈 계모 | 박종대 | 박순호 | 한국구비문학대계 6-4 | 1985 |
| 5 | 우목낭상 | 김만갑 | 임재해 | 한국구비문학대계 7-2 | 1980 |
| 6 | 중국서 장원급제한 성삼문 | 강화원 | 최정여 | 한국구비문학대 7-14 | 1982 |

각편이 여섯 편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판박이처럼 전승될 것 같으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형의 각편에는 묵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우목낭상> 유형의 설화를 상정하는 것은 별반 무리가 없다. 여섯 편의 각편에서 두 가지 사실이 외견상 확인된다.

이 설화 유형은 남성 구연자에 의해서만 구연된다는 점이다. 여섯 편의 각편만을 두고 이러한 단정을 하기는 어렵겠으나, 구연자들이 남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뚜렷한 사실이다. 따라서 계모설화 가운데 유일한 남성화자의 전승 유형이라는 점을 주목하도록 한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남부 쪽인 전라북도·경상북도 등지에서만 발견되는 설화라는 점이다. 특정 지역에만 편재되어 있는 유형이라는 사실은 좀더 확인을 해야 하겠으나, 이 설화가 국지적으로 고착된 전승이라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목낭상> 설화는 남성들에 의해서 구연되는 국지적인 설화임이 확인된다.

두 가지 사실은 배치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각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들에 의해서 구연되는 이 설화는 다른 계모형 설화와는 다르게 주인공도 남성이고, 남성적 해결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가 계모를 응징하는 주체가 되어서 사건 해결의 결정적 구실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계모형 설화와 남다르다. 남성 화자에 의해서 구연되는 사실이 제목에도 일정한 작용을 한다. 천자문을 배우면서 서당에서 구연되었을 법한 이야기의 속성을 일부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 화자에 의해서 구연되는 설화와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다.

<우목낭상> 설화의 유형적 특색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서사 단락을 정리해서 제시하기로 한다.

- (1) 특정 인물이 중국에 가서 시제를 얻었으나 이해하지 못하다.
- (2) 특정 인물이 시제에 얽힌 사연을 말하다.
- (3) 전처와의 사이에 자식을 둔 사람이 후처를 얻다.
- (4) 그 사람이 자식을 두고 집을 떠나 다른 곳에 가게 되다.
- (5) 후처가 자식을 없앨 속셈으로 아버지의 병을 핑계대고 사람의 두 눈알을 요구하는 편지를 조작하다.

- (6) 자식이 자신의 두 눈알을 뽑아준다.
- (7) 후처가 의붓 자식의 눈알을 써서 상자에 보관하다.
- (8) 자식은 봉사가 되어서 유리걸식하면서 통소를 볼게 되다.
- (9) 통소 소리가 빌미가 되어 아버지와 자식이 만나다.
- (10)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후처에게 다시 돌아오다.
- (11) 아버지가 상자에 있는 눈알을 재생하는데 눈물이 필요하다.
- (12) 여성들의 눈물이 있어서 눈을 되살려 아들이 눈을 뜨다.
- (13) 아버지가 계모를 징치하다.
- (14) 특정 인물이 중국의 과거에 급제하다.

<우목낭상>은 각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외화와 내화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정 인물이 중국에 갔다가 그곳에서 과거에 급제하게 될 한시 구절을 받고 이해하지 못하다가 특정 인물을 만나서 그 인물에게서 구절에 얽힌 사연을 듣는 걸의 이야기와 사연에 해당하는 속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설화는 액자설화이다. 그러나 각편에 따라서 이 외화가 없는 것도 있으므로 모든 각편에 일반화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우목낭상>의 본질은 바로 (3)에서부터 (13)까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계모설화의 서두 상황은 어머니의 사망이다. 이 자리에 계모가 대치되어서 들어오고 전처의 소생인 아들과 갈등이 본격화된다. 대체로 이러한 갈등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한 각편에서는 상세히 나타난다. 2번 각편을 보도록 한다.

서방도 없이 전실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거처장시럽고 귀찮았던지 이 아이를 없애 버릴라고 업어다가 먼 디다가 내버리면 도로 쫓아왔다. 또 업어다가 내 버리면 또 쫓아 들어오고, 또 업어다가 내 버리면 또 쫓아 들어오고 했다. . . . (2번 각편, 170면)

서방이 없이 전실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귀찮다고 했으나, 본질은 계모의 적대감이다. 이 적대감은 아버지의 결핍으로 구체적인 표출되는

데, 결핍의 요건은 아버지가 다른 나라로 가거나 귀양을 가는 것이 예사이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계모가 전실 아들을 해치게 되는데, 그것은 편지의 조작이다. 아버지가 병이 났다고 해서 병을 고치기 위하여 눈을 요구하니 자식이 기꺼이 자신의 눈을 내놓게 된다. 그리해서 계모는 다시 찾아오기 어렵게 된 아이를 업어다가 강물에다 버린다고 되어 있다.

집에서 축출된 아이는 유랑 걸식하기도 하고 물에 떠내려가서 대나무밭에 이르러서 특이한 체험을 하고 유랑 걸식의 수단을 얻게 된다. 그러한 과정이 각편 2에 제시되어 있다.

언덕은 대나무가 뽐뽐히 들어서 있넌디 대밭에 앉아서 쉬고 있니랑께 어디서 통수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이는 통수 소리가 나는데로 쫓아 가나라고 대나무를 하나 하나 잡고서 가넌디 어디만칭 가서 대나무를 붙잡으니 게 통수 소리가 딱 근졌다. 야는 그 대나무를 비어서 통수를 맨들어 각고 붙었는디 참 맑고 좋은 소리가 났다.

. . . (2번 각편, 171면)

대나무가 저절로 소리가 나서 눈먼 아이가 그것을 찾아 통소를 만들었다는 것이 단락의 내용이다. 각편에 따라 통소 이외에도 단소가 나타나고, 단소 역시 저절로 찾기보다는 특정한 원조자가 있어서 대나무를 베어서 배우게 되는 대상이 된다. 저절로 배우는가 아니면, 대나무가 소리가 나서 베어서 배우게 되는가 하는 것이 각편의 차이를 결정한다. 통소와 단소 모두 대나무로 만든 악기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

통소소리는 이 아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부과하게 된다. 이 삶의 방식은 남에게 예술적 감흥을 주고 그의 처절한 예술 혼이 그 소리에 배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교감한다. 그래서 아이는 구명도생도 가능하게 되었다. 통소 소리에 자신의 절실한 사연을 갖추어서 사람에게 정감을 준다. 각편 가운데 그 점을 강조한 것도 있으니 그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자기 차례가 왔는데, 곡조를 열기틀, 나는 제모 시하에 커가주고, 제모로

하여금 부친이 눈 실명했다 카는, 눈 곤치게 해서 눈 뻤 거, 이러한 실픈 곡조를 여가 통소를 붙였다. 불으니 저 상좌에 앉아 있는 우리 나라 영상이 들어 보이 참 처량하그던. . . . (5번 각편 767면)

통소를 딱 분께 미라고 분래는 자기 신세 타령을 해.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신세 타령을 통소로 분다 그말이예. . . . (4번 각편, 214면)

그래 이놈이 통소를 부는데 통소부는 그 저어기 인제 곡조가 그 인제 그 형곡을 한단 말이야 (6번 각편, 1237면)

결국 통소 소리가 발미되어서 눈 먼 아들과 아버지가 재회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게 되는 것은 통소 소리를 들어서 알아 차리기도 하고, 통성명을 하고 사연을 알아서 다시 재회하기도 한다. 아들과 아버지가 재회함으로써 계모의 악행이 밝혀지고, 그러한 악행을 처단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와서 버려지지 않은 눈을 찾아서 아이에게 되돌려주는데, 눈을 소생시키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하는 것이 눈물이다. 눈물을 얻기 위한 과정은 매우 소중한 다 생각되므로 그것을 제시하면 각편에서 다음과 같이 발견된다.

눈물이 한 말 짚이나 있어야 그 눈 완전히 낫을 수 있소 …… 그런까 그 몸종 그 눈때준 그 몸종이 쌤님 내가 이 때꼬 받아는 눈물로 된 것이고 … 계인자 눈물 한 말 얻었지. . . . (각편 4, 216면)

국의를 불러 가지고… 눈물, 사람의 눈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장안에 말이지, 어러 수만 호가 안 있습니까? 부인들인데 가서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하이, 눈물 안 흘린 여자가 없어. 그래 모으이께, 눈물 대변 한흠 (각편 5, 769-770면)

한 의사가 오디이 마는… 그 시에 인제 그 때에 그 집 종이 그 인 제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가마, 그 말 들고설랑 그 참 생각하이, … 그러이 그

질로 그마 눈물이 줄줄 흐른다. 아이고 눈물 한 말이 참 필요하다 카던데.

.....

• • • (6번 각편, 1240면)

계모에 의해서 보관된 눈을 다시 밝게 하는데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눈물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눈물을 제공하는 인물은 여성이다. 여성은 두 부류인데, 장안의 여러 사람이거나 이들의 몸종으로 되어 있다. 여러 부인이 절실한 사연을 듣고 쉽사리 감동해서 눈물을 모을 수 있었고, 몸종은 도령의 슬픈 사연을 생각해서 눈물로 지새웠기 때문에 마침내 눈물을 모을 수 있었다. 눈물 속에 눈을 담가서 불려 가지고 눈에다 넣자 마침내 도령의 눈은 재생되기에 이른다.

눈물은 두 가지 측면을 담보한다. 하나는 슬픈 사연이 지니는 감동의 폭이다. 가까이 있는 몸종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슬픔과 하소연 때문에 눈물이 생긴 것이고, 멀리 있는 부인의 경우에는 눈물을 얻고자 하는 이야기의 사연 때문이다. 눈물이 흐를 만큼의 감동스러운 사연이 이처럼 공감의 폭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눈물의 다른 측면은 남성의 눈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눈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눈물이 지니는 놀라운 재생력과 신성력은 다른 민족의 설화에서도 절대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⁴⁾ 따라서 여성의 눈물이야말로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생명을 일구는 수단으로 쓰인다.

계모의 응징이 이어진다. 악행에 대한 당연한 귀결로써 쫓겨나거나 죽여버리는 것이 제시된다. 아들의 반대로 내쫓거나 불에 태워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계모와 그의 자식을 죽이는데 있다. 문면을 보도록 한다.

그렇게 아들 딸이 맺이 되었던지 마느래꺼정 자기 본식꾸라고 생긴 것은
그 눈먼 봉사하고 부자판에만 남고는 방에다 가뒀 놓고 불을 질러 죄다 태와

4) 그림형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집》, 춘추사, 1993. 이 동화집에 수록된 <신데렐라>와 <손없는 처녀>는 눈물의 기능을 보여주는 적절한 이야기이다. 단 순히 서양 기독교의 성수 관념을 넘어서서 생식력을 증대하는 것의 소산일 가능성으로 추정된다.

죽여버렸어. . . . (3번 각편, 479면)

그래 갖고 집이 들어 와 갖고는 집안 식구들 큰 방으다 싹 잡아 여놓고는
문을 딱 칠거 해놓고는 딱 불을 딱 땃거든. . . . (4번 각편, 216면)

계모와 자식을 죽이는 방법으로 소용된 불에 대해서 유난스럽게 강조하는 각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눈물로 재생시킨 아들의 눈과 불로 태워 죽이는 계모의 최후는 매우 대조적이며, 감동과 혹독함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무튼 계모는 집안에서 더 기거할 수 없고, 송두리채 부정되는 것이 결말에 나타나 있는 셈이다.

계모설화 가운데 <우목낭상>은 계모와 전실 아들이 충돌하는 설화이고, 충돌을 매개하고 계모를 처단하는 주체가 아버지이며, 아버지가 무능력하던 다른 계모설화와는 달리 아버지와 아들이 적극적인 구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아버지가 자신의 후처와 소생 자식을 모두 죽이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우리는 주체가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서 사건의 구성 방식이 달라지고, 전반적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제 위의 이야기 서사 단락이 각편마다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편 마다의 서사 단락 비교가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 | 1 | 2 | 3 | 4 | 5 | 6 |
|-----------|---|---|-----|---|---|---|
| 1 [시제] | - | - | + | + | - | + |
| 2 [정보] | - | - | + | + | - | + |
| 3 [가장결혼] | + | + | + | + | + | + |
| 4 [부친출타] | + | + | + | + | + | + |
| 5 [편지조작] | + | + | + | + | + | + |
| 6 [신체훼손] | + | + | + | + | + | + |
| 7 [눈알보관] | + | + | +/- | + | + | + |
| 8 [축출·통소] | + | + | + | + | + | + |

| | | | | | | |
|-----------|-----|-----|-----|---|---|---|
| 9 [부친재회] | + | + | + | + | + | + |
| 10 [모친재회] | + | + | + | + | + | + |
| 11 [눈물] | - | - | +/- | + | + | + |
| 12 [눈알재생] | +/- | +/- | + | + | + | + |
| 13 [옹정] | +/- | - | + | + | + | - |
| 14 [금제] | - | - | + | - | - | - |

(+ : 있음 - : 없음 +/- : 변이)

위의 검출 결과가 타당하다면 비교적 온전한 서사 단락을 갖추고 있는 것은 3·4·6의 각편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가장 논리적 인과 관계가 분명한 각편은 각편 4이다. 비록 논리적 순서의 인과 관계가 온전하나 논리적 인과 관계의 순서에서 결정적인 구실을 하는 것은 아들의 눈을 두고 벌이는 요소이다. 아들 눈을 뽑아낸 것과 이것을 다시 되돌려 받는 과정이 비교적 정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각편에서 액자 설화로 전개되는 각편과 그렇지 않고 내화만을 중심으로 하는 각편으로 양분되어 있다. 액자 설화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나라의 특정 인물이 중국에 가서 겪는 과제(科題)나 과제(課題)를 부여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인물로 발탁된 사람이 성삼문(成三問)과 이정구(李廷龜)이다. 실제로 이 두 인물은 중국을 오가는 임무를 맡아서 중국 여행을 자주 다녔던 인물이다. 그런데 성삼문이 더욱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외화가 없는 각편은 아마도 본질이 잊혀지게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중국에 간 인물이 과거 시험에 응해야 하거나 어더한 고사 성어를 알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편 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각편 3에서는 월사 이정구가 꿈에 두목지(杜牧之)가 나타나서 천자문에 있는 우목낭상(寓目囊箱)의 고사성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자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각편 4에서는 성삼문이 천자에게 배알하고 글제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목낭상에 비누울디라'이다. 이것은 아마도 '寓目囊箱에婢淚一斗라'의 와음으로 이해된다. 이 말은 주머니에 쌓아 상자에 넣어 둔 눈에다 몸종의 눈물 한 말이라는 것의 와전일 가능성이 있다. 각편 6에서

는 성삼문이 등장하고 '婢遣一斗淚'의 고사성어가 주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설화가 혹시 중국에 전승되는 설화가 유입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실제로 설화의 무대 배경이 4개의 각편에서 모두 중국으로 되어 있으며, 각편 3, 4, 6은 사신이 중국에 가서 겪은 일이고, 각편 4에서는 영의정이 중국에 가자 계모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편 4에서는 이야기의 서두에 '송나라 때 안자라는 분네가 송나라 때 정승이며.'라고 제시되어 있어서 이것은 중국의 고사인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깊게 관련된 <千字文>의 '우목낭상' 역시 전혀 다른 내력이 있으므로 중국 설화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중국 이야기라고 하면서도 곳곳에서 우리 설화로 발전되고 변이되어 설화의 수용사를 생생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계모형 설화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논의의 실마리가 된다.

시제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이 두목지, 노파, 늑노포(노파?)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인상적이다. 꿈에 두목지가 나타나서 정보를 준다거나 여각의 식모 할머니가 정보를 주는 것은 우리네 설화의 전통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현상이다. 흔히 표모(漂母)나 팔죽 장사 할머니로 등장해서 난제를 앞둔 인물에게 실마리를 준다. 미천한 처지에 있는 인물이 고귀한 지위를 가진 인물에게 나타나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돕는 전통이 계승된 셈이다.

[가정결손]과 [부친출타]는 이 설화가 계모형 설화인 동시에 계모형 설화의 하위 유형으로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설화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어머니가 죽어서 새로이 계모를 영입하는 것이 드러난다. 우리 설화에서 계모형 설화가 압도적으로 많고, 계부형 설화가 없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이 설화에서도 그러한 전례가 확인된다. [부친출타] 단락은 대체로 벼슬 살이하는 인물이 귀양을 가거나, 아니면 중국에 사신으로 갔거나, 흉노 지방에 치안사 등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요소 때문에 계모형 설화 가운데 이 설화의 차별성이 생기게 된다.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구속력과 계모와 아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편지 조작]은 아버지의 병을 빙자해서 편지를 조작하는 것이다.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않던 시대에 편지 조작은 설화에서 사건을 긴장시켜서 변형시키는 핵심적 요소이다. 편지 조작은 우리 나라 설화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다른 나라의 설화에서도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손없는 색시> 설화에서나 그림 형제의 <황금 머리카락>에서도 편지 조작의 요소는 사건을 증폭시키는 계기를 부여한다.

[편지 조작]은 두 가지로 예사 설화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편지를 가로채서 편지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없는 사연을 꾸며내서 물정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의도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글자로 시를 써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황화일엽>고 같은 설화에서도 문자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고 함으로써 상황을 조작한다.

[신체 훼손]은 조작된 편지로 아들이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눈을 빼는 것이다. 그러나 조작된 편지에 의한 것이므로 계모의 흉계가 더 두드러지며,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아들의 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그러므로 [신체 훼손]은 인신 공희의 전통에서 비롯된 단락소이다. 아들이나 딸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병들거나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낫게 하는 것은 결단코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결국 [신체 훼손]에서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자발적 효과와 이와는 다르게 아들의 효를 유도하는 계모의 사악한 흉계가 충돌하고 있다. 아버지가 부재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병을 빙자해서 아들의 눈을 훼손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계모는 이 유형의 설화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며 악의 축인 셈이다.

[눈알 보관]은 이 설화의 제목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묵낭상이 그것이다. 뺀 눈알을 직접 약에다 쓰지 못하고 계모가 그것을 바꾸어 주머니에 넣어서 계모가 보관하는 것도 특별한 현상이다. 눈알은 없어지지 않으며, 나중에 주인공의 눈 재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주머니와 상자가 함께 거론된 것은 이 때문이다. <손없는 색시>에서 갑자기 손을 새가 물어가는 사례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눈알을 계모가 가짐으로써 눈을 빼게 한 장본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후반부에

서 이러한 일이 실현된다.

[축출·통소]는 눈이 먼 장님이 되어서 자신의 집에서 주인공이 쫓겨나는 것을 말하면서 구명도생할 방도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구명도생의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특별한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얻어진 통소 또는 단소 불기이다. 축출 역시 일정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각편 1, 2, 3에 있듯이 눈먼 아이를 강물에다 버렸으나, 도달한 곳이 대나무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자연적으로 소리나는 대나무를 찾아서 통소 또는 단소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소라고 되어 있는 각편은 3번 뿐이다. 나머지 4, 5, 6번 각편에서는 통소를 배워서 불었다고 되어 있다.

이 화소의 핵심은 대나무로 악기를 만드는 것이다. 저절로 소리가 나는 대나무의 설화적 전통은 내력이 깊다. 《三國遺事》〈紀異〉四十八 景文大王의 <임금님귀는 당나귀귀>와 같은 설화에서 대나무가 하는 것과 유사한 면모를 가졌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설화적 진실이 대나무 통소로 바뀌면서 [통소]는 자신의 사연만은 알아줄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변형되어서 쓰이고 있는 셈이다. 모든 사람의 공감과 진실의 상통은 같은 의미라고 하겠다.

[부친재회]에서는 각편마다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유랑걸식하다가 아버지를 만나는 점에서 공통적이거나 부친을 만나는 요소는 통소에 있다. 통소를 잘 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사연을 전해 듣고 아버지와 만나나 통소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 듣는 것이 관건이다. 외모를 단순히 아는 것 보다 오히려 통소소리의 비밀이 무엇인가 알아 차릴 수 있어야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만남은 가능하다. 앞에서도 인용했듯이 아들은 통소로 자신의 사연을 말하고 다녔으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눈이 어두운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모친 재회]는 가정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행적으로 말이암아서 당연한 요소이고 계모의 악행을 밝히기 위한 순서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계략이 두드러지기도 하는데 대체로 재회에서는 아들의 눈을 다

시금 찾는다.

[눈물]은 다시 찾은 눈을 재생하고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마련된 서사 단락이다. 각편 1, 2, 3에 약간의 변이가 있으며, 각편 1과 2는 단조롭게 다시 눈을 끼워 넣었다고 되어 있으나, 각편 3에서는 피가 묻은 눈을 물에다 불려서 다시 끼워 넣는다. 그러나 의미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며 각편 4, 5, 6에서는 눈물로 눈을 재생하게 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앞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여성의 눈물이 결정적인 구실을 하며, 곁에 있는 몸종의 눈물은 각편 4와 6에 나타나고, 동네 부인의 눈물은 각편 5에 출현한다. [눈알 재생]은 각편 전편에 고루 나타난다.

[응징]에서는 계모가 처단되는 것으로 각편 1에서 살려두고 내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편 2에서는 결락되어 있고, 각편 3과 4에서는 불에 태워 죽이고, 각편 5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그 소생을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편 6에서는 응징하는 화소가 없다. 그래서 [응징]에서의 변이 차이가 나타나며 구전 설화의 편폭이 전승에 있음을 확�히하게 된다.

[급제]에서는 [시제]가 있는 것과 호응하는 곁의 이야기 결말에 해당하나 오로지 각편 3과 6에서만 발견되고, 각편 4에서는 그러한 서두 상황에도 불구하고 [급제]가 사라졌다. 각편 3에서는 이정구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편 6에서는만 중국 과거에 성삼문이 급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액자 설화 형식만 갖추고 있는 셈이다. 각편에 따라서 저마다의 독자적인 질서가 갖추어져 있으나 [급제]에서 결락과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러한 설정은 이 설화의 진정한 방향이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라 해도 그릇되지 않는다.

이제 이 설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 설화는 중심이 내화에 있고, 내화에서도 의붓아들과 계모의 갈등에서 의미를 찾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 설화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구실을 하는 인물은 다른 계모형 설화와는 다르게 아버지이다. 게다가 이 설화에서는 아버지가 귀양을 가고 없는 사이에 계모가 편지를 조작해서 개입한 것이므로 아버지의 시눈적 처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아버지가 영의정이거나 다른 장소의 벼슬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집을 비우는 사연이

되는 것은 이 이야기의 본질이 사회적 반영에 따라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 설화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이 작품의 주된 대립은 계모와 아들에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대립이 어떠한 각도에서 진행되는가 대립의 요소를 정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대립 요소가 마련된다.

| | 의붓 아들 | 계 모 |
|---------|-----------|------------------|
| 최초의 대립 | 눈 | 눈을 빼앗기 위한 편지 조작 |
| 두 번째 대립 | 귀와 입 | 눈 |
| 세 번째 대립 | 귀·입·눈의 복합 | 계모의 생명·자신의 소생 죽음 |

이 설화의 핵심적 대립은 눈과 귀의 대립이다. 눈은 외부의 사물과 시각적으로 접촉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이에 반해서 귀는 외부의 사물과 청각적으로 접촉하는 감각적 요소이다. 시각과 청각의 대립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모는 편지 조작을 한다. 편지 조작은 문자를 임의대로 왜곡 시키며 문자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증거이다. 문자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수단이 아니고 간접화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모가 이 사실을 원용해서 아이의 눈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다. 아들이 문자 해독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가 관건인데, 아이가 아마도 문자를 알아볼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조작이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눈의 상실을 광명의 상실이고 다른 감각기관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 대립은 계모가 주머니에 싸서 보관한 눈을 가진 것과 의붓아들이 귀에 의존해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 방식이 대립적 요소로 작동한다. 계모는 자신의 적대자인 의붓아들을 쫓아내고 자신만의 문화적 공간으로 꾸몄으며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기반을 닦았다. 그것은 감추어둔 눈 덕분이라 할 수 있고, 눈 없이 쫓아낸 아이는 단연코 죽을 것이라 간주했다.

의붓 아들은 강물에 버려져서 이름모를 섬으로 다가간다. 강물에 버려지는 영웅의 전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광경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라 하겠다. 이 과정에서 각편에 따라 하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데 그가 양육자의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나무 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소리나는 대나무를 찾아서 악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된다. 저절로 소리나는 대나무는 소리에 의한 청각 기관을 자극하는 것이고, 그러한 대나무로 악기를 만든다는 것은 입으로 절실한 사연을 갖춘 채 불어서 귀에 전달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의붓아들에게 귀와 입은 절대적 수단이 되고, 소리나는 대나무와 통소를 연결짓는 것은 귀와 입을 중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연과 문화를 중재하는 구실을 한다.

다른 한편에서 계모는 철저하게 문화적 감각기관인 눈에 의해서 눈을 빼앗고 편지 조작을 통한 문화적 문자에만 얽매어 있는 셈이다. 계모는 문화적 공간의 극치인 집에만 간혀 있을 따름이고, 바깥의 사정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수단인 눈을 크게 의존하고, 이들에게 빼앗은 눈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실제로 그 눈을 주머니와 상자에 보관하는 것을 능사로 삼으면서 자신의 승리에 만족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의붓 아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입을 통해서 불어넣어 남의 귀에 전달하는 재주로 세상을 유랑한다. 눈먼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입과 귀라는 감각 기관을 매개하는 통소를 통해서 남의 귀를 자극하는 일을 하고 다니다가 마침내 이 소리의 사연을 알아듣는 부친을 만나게 된다. 부친은 아들의 외모로도 알아차리지만, 더욱 소중한 수단이 되는 것은 역시 통소 소리의 슬픈 사연이다. 문자에 의해서 왜곡되는 모습도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의 사연을 소리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해서 공감을 얻어낸다.

<임금님은 당나귀 귀>라는 전통적인 설화에서도 자신의 마음 속 사연을 대나무 밭에 털어놓고 가자, 그 대나무가 서걱이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저절로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방방곡곡에 소문을 내게 되고 그 사연을 임금이 알아차리는 과정과 <우묵낭상>의 설정은 매우 흡

사하다. 다만 <우목낭상>에서는 못 사람의 공감 과정이 있으나 당사자인 아버지와 아들이 통소 소리를 매개로 해서 재회하는 점이 훨씬 진지하게 설정되어 있다.

세 번째 대립은 아버지와 아들이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대립의 근저인 감각기관은 여전히 지속적 의의를 갖는다. 의붓 아들은 귀와 입에 그치지 않고 이제 눈을 다시 획득하기에 이르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입이라는 감각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아들의 사연을 알고 있는 인물이나 주변 인물이 그 사연에 감동해서 살아 있는 눈물을 쏟아내야만 아들의 눈이 되살아난다. 그러므로 아들은 귀와 입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공감에 의해서 눈물을 눈에다 첨가함으로써 자신의 온전한 눈을 획득한다. 특히 눈을 다시 찾는 데에는 계모가 앓으려는 눈의 악심이 아니라, 아들의 사연을 들은 감동의 눈물이고, 그 눈물은 반드시 여성의 눈물이어야만 한다. 계모의 눈물은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딱한 아들의 사연이 주는 공감을 가진 여성들의 눈물이었을 때 바람직한 감동과 재생력이 있다.

계모는 악행을 시인하고 눈을 되돌려 주는 반면에 모든 감각을 차단 당하는 안방에 갇혀서 비참하게 불에 태워 죽이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감동의 눈물에 의해서 온전한 빛을 찾는 아들과 뜨거운 불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계모는 매우 대조적이다. 감각적으로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의 대립은 설 양립할 수 없으며, 눈물을 가지고 있는 쪽이 승리되는 결말을 안고 있다.

의붓 아들은 자신의 눈을 불쌍하게 된 부친을 희생함으로써 일정 부분 감각을 상실했으나, 점차로 다른 감각 기관을 재활용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동참하는 감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조작된 감각기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소리를 얻어서 그것에다 사람의 소리를 담아가는 전폭적인 확장력을 지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눈까지도 여러 사람의 동참에 의해서 온전히 회복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반해서 계모는 남의 눈을 빼앗아 상자에 눈을 보관해 둬으로써 일시적 승리를 보장받았으나, 점차로 자신에게 함몰되고 급기야는 안방의 문화적 공간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측면이 부각된다. 따라서 감각기관의 확장과 여

러 인물의 전폭적 참가가 이루어지는 것과 특정 감각기관에 의해서 집착하여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대립의 비약적 결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의 대립에 중재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재자는 곧 아버지와 몸종이다. 아버지는 다른 계모형 설화와는 다르게 중재자 구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아들의 통소 소리에 담긴 뜻을 알아채는 데서 극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무속신화나 건국신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할 때에 발생하는 증거물 확인의 전례가 변형된 것이다. <주몽신화>의 끝에 유리와 주몽이 만나서 이루는 혈연 확인 절차나 <제석본풀이>나 <천지왕본풀이>의 증거 확인 절차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다만 아버지가 자식의 사연을 듣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아들의 눈 재생과 계모를 처단하는 점이 부각되어 있다.

또한 몸종 또는 하녀의 중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녀는 빛을 잃은 의붓아들의 처지를 동정하고, 그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말 부분에서 아들의 눈을 되살리는 눈물을 제공하는 인물이다. 계모와 다르게 아들의 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눈물을 제공하는 인물이다. 계모와 다르게 아들의 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눈물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몸종이어서가 아니다. 눈물을 많이 주는 것은 강력한 생식력의 제공이며, 눈물에서 눈알을 재생시키는 것은 대모신 또는 대지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마치 곡식의 눈이 트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이 이렇게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중재자 둘을 합쳐서 보면 아버지와 몸종은 천부지모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재래의 신화적 속성을 지닌 천부의 관념이 계모형 설화의 상황에 맞게끔 변형되어서 지체가 높은 아버지가 귀양간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지모는 걸으로 드러나지 않고 몸종으로 변질되어서 숨은 구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신에 적대자인 계모를 끼워 넣어서 부정적 구실을 하는 악행을 하게 해서 재래의 신화 구조를 뒤집어 놓았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다른 중재 요소가 있으니 대나무와 물 및 불 따위는 신화적 속성이 강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목낭상> 설화는 야생의 상태와 문화의 상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갈등 상황을 반영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문화적 상태에서 야생 쪽으로 밀려난 이들이 자신의 감각 기관을 다른 차원에서 구현하면서 온전하게 자연과 문화를 연결시킴으로써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혈통의 계승이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온전한 감각 기관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이 체계적으로 구성됨으로써 특정한 문자에 얽매인 집단을 공략하고 구성원 전체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서 사제권이 계승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근원적 대립이 단순하게 계모와 의붓 아들의 가족내 갈등으로만 읽혀져서 사태의 본질적 국면이 효와 자애로만 읽혀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 중세 문자에 의한 가족내의 유교 윤리로 변형된 요소가 개입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천자문>의 고사성어에다 결부시킨 것이 명백한 증거이다. 재래적인 심층적 이야기가 시대 여건이 달라지면서 상승하면서 이러한 이야기의 변개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되며, 그러한 외면적 특징이 있다. 그러나 다시금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는 꼭 그러한 표면적 의미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족내의 갈등이 자연과 문화의 대립에서 생긴 불가피한 혼란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을 일정한 차원에서 조절하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우목낭상>은 신화적 논리를 담고 있는 민담이라고 판단된다.

3. <우목낭상>과 <손없는 색시>의 구조적 비교와 의의

<우목낭상>과 <손없는 색시> 설화의 비교가 되는 근거는 철저한 공통점 때문이다. 설화의 주체가 계모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두에서부터 시작하여 결말 부분에서 계모를 응징하는 데 이르기까지 이 설화는 숨길 수 없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설화의 주체가 아들인가 딸인가에 의해서 근본적인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설화는 반드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두 설화의 근본적인 요소를 비교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소가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 〈우목낭상〉 유형 | 〈손없는 색시〉 유형 |
|--------------|-----------|-------------|
| 1. 설화 주체와 객체 | 아들 : 계모 | 딸 : 계모 |
| 2. 조 작 | | |
| 2.1. 징절 조작 | × | 쥐를 이용해 조작 |
| 2.2. 편지 조작 | 아버지 편지 조작 | 가로챈 편지 조작 |
| 3. 신체 훼손 | 눈알을 뽑 | 손 절단 |
| 4. 구 원 | 몸뚱에 의해 구원 | 도령에 의해 구원 |
| 5. 축 출 | | |
| 5.1. 집안 축출 | 축출 | 축출 |
| 5.2. 시집 축출 | × | 시집 축출 |
| 6. 유 량 | | |
| 6.1. 1차 유량 | 유량(통소) | 유량 |
| 6.2. 2차 유량 | × | 시집 축출 후 유량 |
| 7. 신체 재생(요소) | 눈 재생(눈물) | 손 재생(샘물) |
| 8. 재회와 응징 | 가족재회 응징 | 남편재회 응징 |

이상의 도표에서 확인되듯이 두 설화에서 주된 대립은 자식과 계모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우목낭상〉에서 아들이 주체가 되고 객체가 계모이므로 이들의 대립은 간단치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결핍되는 사정이 장기간에 걸쳐 멀리 출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손없는 색시〉에서는 계모가 주도권을 쥐고 일방적으로 딸을 위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들인가 딸인가에 따라서 사건의 전개 양상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적대자인 계모가 이들의 경우에 조작을 가하는데, 〈우목낭상〉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편지 조작이 전부이다. 그러나 〈손없는 색시〉에서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키우던 쥐를 죽여 껍질을 벗겨 잉태했다는 징절을 의심케 해서 쫓아내고,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새로이 꾸민 가정에까지 투입해서 편지를 가로채서 다시 쫓겨 나도록 하고 있다.

신체 훼손은 계모의 조작에 의한 것이므로 동일하다. 그런데 <우목낭상>은 편지 조작에 의한 자발성을 띠고 있으며, 아버지를 위해서 눈을 빼는 가혹한 희생으로 되고 있으며, 그것도 두 차혜에 걸쳐 눈을 뽑는 것에 의해서 희생된다. 이에 반해서 <손없는 색시>에서는 정절을 조작 당한 뒤로 손을 절단 당하게 된다. 특히 손 절단의 주체가 계모가 아닌 친아버지인 점이 차이가 난다. 계모는 자신의 지혜로 간접화된 신체 훼손을 달성한다는 점도 공통적이라고 하겠다.

축출과 구원은 동시적 상황이다. 집안에서 불구가 된 채로 쫓겨나는 점은 동일하나, 특정한 구원자가 있게 마련이다. <우목낭상>에서는 배우자가 아니고 노비이고, <손없는 색시>에서는 장차 배우자가 되는 도령인 점이 차이가 있다. 남자는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만나서 구원받는다. 그러나 <손없는 색시>에서는 편지 조작에 의한 2차 축출이 이루어진다. 그 점이 남다르다고 하겠으며, 유랑 이후의 2차 유랑이 첨가된다. 유랑에서는 여성의 경우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통소라는 수단을 가진다.

두 설화에서 요긴한 요소는 눈이 재생되는 것과 손이 재생되는 것이다. 이 대목이 두 설화에서 가장 긴요한 것인데, 두 설화 모두 눈물과 샘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인간의 눈물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적 샘물이라는 점에서 상이점을 갖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물에 의해서 재생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재생에 있어서 여자의 눈물과 죽은 어머니의 개입은 묵과할 수 없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에 따르는 재회와 웅정은 공통적이거나, <손없는 색시>에서는 남편 재회 후에 웅정이 이루어지는 점이 차이를 낳는다.

<우목낭상>과 <손없는 색시> 설화에서 인물의 기능이 대립적으로 설정된 것은 계모와 전실 지식인데, 각기 그 기능에 차이가 있다. <우목낭상>에서는 아들은 처음에 계모에게 몰려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가 점차적 적극적인 자신의 타개책을 갖고 있으며, 나중에는 계모와 아버지의 대립으로 발전시키는데 비해서 <손없는 색시>에서는 계모와 딸 가운데 계모가 적극적 기능을 하고 이러한 기능은 계모와 사위, 계모와 딸 사이

에서도 변하지 않음을 확인된다. 계모의 악행이 응징되는 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수동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계모와 사위의 대결이 본격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우목낭상>에서는 계모:아들, 계모:아버지, 계모:몸종 등의 관계가 차례로 변형을 이루면서 전개되지만, <손없는 색시>에서는 계모:딸, 딸:도령, 계모:딸, 딸:도령 등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단조로운 반복에 그치고 있다. 여성들의 행동 반경이 집과 시집 차원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기며, 여성과 여성 사이의 동성 대결이기 때문이라도 결과가 예측 가능한 상태로 변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설화가 특정 인물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기본적 대립 구조를 달리하면서 변형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계모형 설화에서 근간 구조에 계모와 전실 자식을 구성 요소로 하면서 기능이 달라지게 되면, 각기 독자적인 설화 유형을 창출하는 것으로 변형되어 나타남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기능 여하에 따라서 이야기 순서의 전개나 이야기의 반복 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아들과 계모의 대립, 계모와 딸의 대립이 두 설화에서 달라졌다.

| | |
|--|---|
| <우목낭상> 계모 : 의붓 아들 :: 의붓 딸 : 계모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 <손없는 색시> 계모 : 딸 :: 딸 : 도령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
|--|---|

의붓 아들이 의붓 딸로 바뀌었던 역으로 의붓 딸이 의붓 아들로 바뀌었던 이에 관계없이 설화의 기본 양상이 각기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에 따라서 사건의 구성 요소 역시 다른 순서에 입각하여 결합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계모형 설화는 구조적인 대립요소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안개 상자에 담겨져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서 이야기의 전개 방향과 유형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목낭상>과 <손없는 색시>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은 것이

고,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보면 다른 이야기가 달라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구조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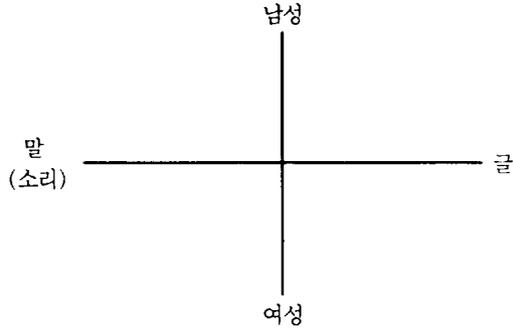
구조적 변형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우목낭상>은 남성에 의해서 구연되는 남성의 설화이다. <손없는 색시>는 여성들에 의해서 구연되는 여성의 설화이다. 남성의 설화는 사안에 대한 해결 방식과 문제의식이 남성적 시각에 의해서 진행된다. 여성의 설화는 사안을 여성적 시각에 의해서 진행된다. 남성은 집을 나서서 특별한 가정을 이루거나 배우자를 정하지 않고, 전국적인 유랑을 예인의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에 견주어서 여성은 배우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성의 도움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특별하다.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행동 방식을 나타내나 근본적으로 해결 과정에 있어서 동일한 근거를 인정한다. 남성은 여성의 눈물에 의해서 눈을 되찾을 수 있었다면, 남성과 최종적으로 재회하면서 여성은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은 궁극적 합일을 해야만 최종적인 결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설화에서 발견되는 진리이다. 남성과 여성의 만남은 대단히 소중한 인류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구비전승인 설화에다 그러한 만남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변형의 근거에 둘의 유사성을 알리는 중요한 징표가 있으니 그것은 조작에 의한 신체 훼손이다. 조작은 두 가지 설화 모두 문자에 의한 것이 긴요한 지표가 되고, <손없는 색시>에서는 쥐를 죽여서 껍질을 벗겨서 정절을 의심하도록 하고 있다. 쥐는 인간을 대신하는 것으로 흔히 '혼쥐'에서 확인되듯이 사람의 혼이 쥐가 된다고 하는 설정과 일치한다. 쥐는 신화적으로도 인간과 음식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에까지 공유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쥐를 죽여서 여자의 정절을 의심하도록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자연과 문화를 공유하는 정신에서 어긋나고, 특히 자연과 문화의 교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자에 의한 조작은 진정한 자연과 문화의 호혜 균등한 교환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남성과 여성, 말과 글이라는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해서 특별한 변화가

생겼으니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우목낭상>과 <손없는 색시>는 소리와 말로 이루어지는 구비시대와 글과 문자로 이루어지는 기록 시대의 갈등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갈등의 시대를 형상화하고 있다. 말과 여성이 한 묶음이 되고, 글과 남성이 한 묶음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묶음 위에 중요한 대립의 전이가 생겼으니 <우목낭상>에서는 남성이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수단인 눈을 손상시켰으며, <손없는 색시>에서는 여성이 문자를 쓸 수 있는 수단인 손을 손상시켰다. 그래서 <우목낭상>에서는 눈을 잃은 대신에 소리를 대체적인 수단으로 삼아서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손없는 색시>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이 불구적인 모습으로 유랑하다가 죽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샘에서 손을 재생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각편에 따라 모두 다르나, 천둥과 번개에 맞아서 샘에 빠져 청각적인 자극으로 재생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리와 손이 연결되어서 손이 재생된 샘이다.

그렇다면 두 설화는 말:여성::글:남성의 기본적인 대립 항목을 주축으로 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 요소 사이에 생긴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하려는 시대의 조화 과정을 담고 있다. 여성:글::남성:소리의 변형된 관계가 본래 상태로 환원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는 손의 단절이 정절과 관련이 있고, 남성에게는 눈의 훼손이 효과 관련이 있다고 하

면서 특정한 가치윤리가 개입되어 있어서 종래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엉뚱한 요소와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근간에서의 갈등 요소는 그것이 아니다.

통소로 전달하는 직접적인 전달 수단이 소리이고 말이듯이 편지로 전달하는 간접적인 전달 수단이 문자이다. 문자의 출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대의 갈등이 <우목낭상>과 <손없는 색시>와 같은 설화에 투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 두가지 설화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모형 설화에 모두 적용된다. 예컨대 <접동새>형 설화나 <황화일엽> 등의 설화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 그 설화에서도 소리와 문자의 대립적 기능은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 동일유형의 설화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설화에서도 이러한 충돌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목낭상>과 <손없는 색시> 설화에서 동일한 시대의 문제의식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설화의 주제는 무엇인가? 표면적인 주제는 권선징악이다. 권선징악이라는 문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유교적인 선악관에 의해서 구현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오래된 불교적인 선악관인지, 더 나아가서 무속에서 말하는 선악관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기존의 계모형 설화의 주제 해석에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소 사회적 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갈등이 있어서 기존에 형성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물학적 법칙이다. 선악관의 가치론적 사고는 인류의 문화적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쪽에 윤리적 굴레를 씌워서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려는 것은 동물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법칙이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계모의 악행을 문제삼았다. 악행은 대단히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철저하고도 본질적인 공격 본능을 전제로 한다. 사람의 손을 자르거나, 사람의 간을 먹으려고 한다든가, 아이의 눈을 빼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살벌한 것이다. 그러나 계모를 퇴치하는 것 역시 훨씬 공격적이다. 계모를 불에 태워서 죽인다고 하면 계모를 능지처참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매우 제도화된 보복행위 같으나 공격적 본능

을 이면에 갖추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계모형 설화는 표면의 가정을 넘어서서 인류의 역사 전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갈등 처리 방식을 자연과 문화의 수단을 이용하여 보여주고 있는 구비문서이다.

계모형 설화가 지시하고 있는 저변에 설화마다의 문제 해결방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목낭상>은 남성의 의식 아래 문제를 집요하게 추구하면서도 여성과 남성의 정서적 공감대를 매우 중요시한 문화적 해결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다른 데서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간직한다. <손 없는 색시>와도 아주 유사한 해결 방식을 제기한다. 그러나 문자를 일정한 수단으로 하는 남성들의 문제의식이 간접하고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발견된다.

설화연구가 일정한 고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설화 연구자 누구나 감지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연구 방향의 시정이 요청된다. 첫째, 설화 유형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고 자료의 재발견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다. 기존에 나와 있는 유형 분류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연구가 거듭 요청된다. 자료의 발견은 연구 성과의 수용인 동시에 기존 견해를 넘어서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 논의 삼은 계모형 설화는 세 가지 연구에 의해서 진척되었으나, 이제 새롭게 규명된 측면이 있다. Stith Thompson, 최운식, 조동일 등의 분류와 연구가 그것이다. 스티스 톰슨은 분류 자체가 제 각각이어서 합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⁵⁾ 최운식은 사건 위주의 구조 분석이어서 유형 분류

5) Stith thompson, 《The types of folktale》(Helsinki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1964)

- 403 흑인신부와 백인신부
- 425 잃어버린 남편 찾아나서다
- 432 새가 된 왕자
- 450 작은 오누이
- 451 오라버니를 찾아나선 아가씨
- 480 샘가에서 실 갖는 여인
- 502 야만인
- 510 신데렐라
- 511 한눈이, 두눈이, 세눈이

라 보기 어렵다.⁶⁾ 조동일의 유형 분류는 본고의 논지와 흡사하나 유형 부여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⁷⁾

둘째, 유형군 전체의 대립적 요소를 찾아서 다시 기술하고 전반적인 구조적 변형 요소를 찾아서 다시 기술해야 한다. 특히 변형 규칙을 찾아서 유형과 유형 사이의 구조적 치환을 입증하게 되면, 이 설화 유형의 공식적인 의의와 통시적 의미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겉으로 그려나는 의미 이상의 숨은 의미를 캐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형 상호간의 구조적 변형을 거듭 문제삼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고에서 <우묵낭상>과 <손없는 색시>를 들어서 비교하고 그것의 변형 규칙을 찾으려고 하였다.

-
- 516 충실한 요한
 - 590 왕자와 팔찌
 - 592 가시덤불속의 유태인
 - 706 손없는 색시
 - 708 신기한 아이
 - 709 백설공주
 - 720 노간주나무

6) 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1991, 176-212쪽, 계모형 설화를 착한 계모형 이야기와 악한 계모형 이야기로 압누하고, 착한 계모 이야기를 개과천선한 계모형, 천성적으로 착한 계모형으로 나누고, 악한 계모 이야기를 어린 아들을 버린 계모형, 난제를 부과하는 계모형, 아들의 간을 먹는 계모형, 콩쥐팥쥐형, 딸의 부정을 꾸민 계모형,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 자부의 부정을 꾸민 계모형, 새사위를 죽이려는 계모형, 신부를 바꿔치기한 계모형 등으로 나누어 모두 11가지 하위유형을 상정했다.

7) 조동일외, 앞의 책.